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84 1981년12월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December 1, 1981

DEC 3 1981
EAST ASIAN LIBRARY
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한국인 공범여부 수사

FBI, 내부사정 잘아는 수송관계자등…

◇… 〈뉴욕--김태웅특파원〉 2백만달러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미연방수사국 특별수사반은 이 사건에 한국인 공범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범인들은 한국외환은행과 RNB사이에 오간 달러구매작전암호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내부에 제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각도에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

페어뱅스공항서의 증발가능성도 조사
RND에서 인수받을땐 분명히 현금였다

FBI는 일부 RNB 현직 행원이나 전직행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을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현금수송작전의 과정을 알 위치에 있는 수송관계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RNB에서 케네디공항까지 달러를 수송한 아모드익스프레스의 호송원 4명등의 관계자가 이미 조사를 받았으며 또 2명의 KAL 직원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곳 금융가에서는 문제의 달러가 케네디 공항에서 KAL기에 실리기전 증발됐으리라는 추정과 함께 기착지인 알라스카 페어뱅스 공항의 기착시간 사이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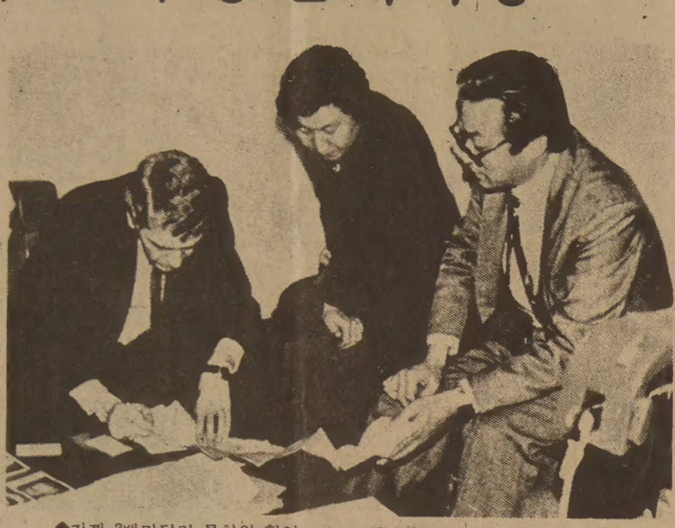
관계자는 한국쪽 사정을 잘 아는 자이거나 한국계 공범이 있을 경우 범행여건이 어느곳보다 좋은 페어뱅스 공항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한편 FBI측은 현금수송을 맡았던 아모드익스프레스(AEI)가 지난 10일 하오 2시께 리퍼블릭 내셔널뱅크(RNB)에서 이 은행 인계책임자 엘라토씨로 부터 행낭을 넘겨 받았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나 AEI의 행낭인수가 지금까지 알려진 10일 하오 4시30분 보다 2시간30분이나 빨랐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새로운 사실이 드어남으로써 수사당국은 AEI가 행낭을 넘겨받아 KAL기에 인계하기 까지의 11시간 55분 동안과, KAL이 행낭을 인수받아 페어뱅스 공항에 기착중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AEI가 RNB로 부터 인수받은 행낭이 바꿔치기 당했다는 것은 현송화물인도 인수중에서 나타났다. AEI가 RNB로 부터 행낭을 인수받을 당시에는 5개 행낭의 무게가 46.1파운드로 정상이었으나 한국은행이 KAL로 부터 인수받아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달아본 행낭무게는 36.96파운드로 9.14파운드나 가벼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AEI가 RNB에서 행낭을 인수받을 당시에는 진짜 돈이었으나 그 이후 AEI회사가 보관중이거나 또는 KAL기가 거친 두곳의 공항에서 증발됐다는 것을 뒷받침 해고 있다.



◆가짜 2백만달러 뭉치의 확인 - 지난 13일, 2백만달러의 현금이 증발된후 리퍼블릭 내셔널 뱅크의 홍콩주재 부사장 커트·앤더슨씨(왼쪽)가 한국외환은행 관계자 참관하에 가짜돈의 확인서류에 서명하고 있다.〈서울 〉

토론토식수 위험없어
북미에서 가장 정결

메트로토론토의 식수는 북미에서 오염이 없는 가장 정결한 물이라고 위생관들이 24일 공언했다.

토론토보건위생국(The Toronto Board of Health)의 이같은 발표가 있자, 메트로 시위원회 의원들은불쾌의 빛을 감추지 못하며, 메트로 식수가 임신부에게 위험하다고 거짓 경고한 위생국 관계자를 파면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생국은 얼마전 보고서에서 메트로토론토 식수가 오염이 됐으며 특히 임신부에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경고했었다.

오염조사반의 한 관리는 메트로 식수에 화학독소가 들었다는 위생국의 보고서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온타리오환경성의 식수공급담당 전문관리들도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식수공급 관계자들은 비록 식수에 위험이 없다고 판명되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메트로시위원회는 토론토보건위생국과 합동으로 오염물질이 식수에 미치는 영향과 식수정화 제도를개선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더 철저히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불어사용도시 순위
몬트리얼3위로 하강

세계의 불어사용권 도시중 프랑스「파리」 다음으로 큰「몬트리얼」이 그 자리를 아프리카 자이레공화국의 수도「킨샤사」에 뺏겼다.

「파리」의 〈르몽드〉지 는 "베비·붐"(Baby Boom)으로 킨샤사의 인구는 61년의 40만명에서 현재 3백만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da) 발표로는 몬트리얼의 불어사용 시민은 1백8십7만1천명으로 계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있다.

서울농대송년파티

서울대학교농대동창회는 12월19일(토) 하오6시 Hotel Triumph Sheraton, Vitoria Room(2737, Keel St)에서 송년파티를 연다.(참가비 $20)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64명폭사 135명부상
폭발물차사고 반정부 게릴라 소행

(다마스커스)28일 다마스커스시내에서 폭발물을 실은 자동차가 폭발, 64명이 죽고 135명이 부상당했다.

사고는 다마스커스 중심가 병무청근처에서 무법난동자들의 단체인 회교형제단(Moslem Brotherhood)에 의해 발생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베이루트의「레바논해방기구」는이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기구는 시리아 군의 레바논 주둔을 반대해왔다.

목격자들은 차를 몰고가던 범인이 차를 경찰서 앞에 세운후 시리아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저격당했고 범인이 저격당한지수초후 자동차가 폭발, 참사를 빚었다고 말했다.

서방측외교관들은 이번 사고가 지난3년간 시리아에서 일어난 반정부게릴라들의 소행중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신춘문예"마감박두
문단진출의 지름길

토론토 소재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박충도)가 공모중인 제5회 신춘문예는 오는 15일로 마감된다.(〈한국일보〉 10월12일자)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아동문학(동시,동요,동화)의 6개부문에 걸쳐 캐나다 전역의 숨은 문사(文士)들에게 문단진출 등용문이 되는 이 신춘 문예에 많은 응모 있기를 바라고 있다.(연락전화 533-2364 Mr. Lee)

출품마감 : 12월 15일

제출처 : Korean Canadian PEN Club 5 Massey SQ. #2008 Toronto. ONT. M4C 5L6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국악음반 일본수출
주문주, 학술단체등

(서울 27일 연합=)한국유수의 음반제작회사인 정음사는 한국고유의 궁중음악등 국악음반을 일본에수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음사는 최근 일본화폐로 40,000엔상당의 음반50개 24세트를 일본에 수출했다. 주요고객은 일본의 각대학및 학술단체이다.

일본은 추가로 300 세트를 곧 구매할 것이라고 정음사가 밝혔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미·쏘 군축회담
소련, 유럽여론 지지얻어

소련은 3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 소 군축협상을 앞두고 크레믈린의 강경태도가 누그러졌음을 보여줬다.

소련은일찌기 레이건의 군축제안을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공산당기관지 〈가제트〉 25일자는 이번 군축회담을 긍정적인 면에서평가했다.

레이건이 18일 제안한군축방법은 일명『제로옵션』(Zero Option)으로 소련이 유럽의 대도시 공격을 목표로 설치한 SS20, SS4, SS5등 중거리 핵미사일을 철거할 경우, 퍼싱II및 크루즈미사일 572기의 유럽배치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협상자세에 대한 소련의 반응은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서독방문 마지막날에 변화가 있었다.

브레즈네프의 이번 서독방문은 미국이 83년도경 유럽에 배치예정인 신형 중거리 핵미사일설치에 대해 유럽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얻기 위한 포석이었다.

서독의 헬무트·슈미트 수상은 이번 브레즈네프와의 회담으로 나토(NATO)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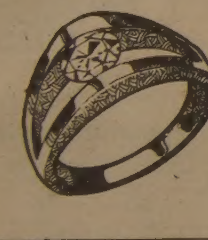
결국 브레즈네프- 슈미트회담은 미·소 군비경쟁에서 미국의 많은 양보를 초래했다.

레이건은 서독의 슈미트수상이 들고 나온『제로옵션』을 애초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나, 유럽여론은 이 레이건의 핵정책에 비판적이며, 반핵시위가 고조되자 부득이『제로옵션』을 택하게 됐다.

서방관측통은 브레즈네프-슈미트회담으로 유럽에서 외교적으로 유리한고지를 차지한 소련은 대미, 유럽정책에 전보다 온건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일보
533-2361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나타리·웃. 29일 휴양지 산타클라라에서 익사했다. 사진은 로렌스·올리비에 감독의 「뜨거운 양철지붕의 고양이」의 한장면(2면에 계속)



보석(귀금속)가공공장면허를 획득하고 있는 은하보석상에서 PRE-X마스 선물로 드리는……

◆◆ 다이아몬드 깜짝세일 ◆◆

장 소 : 635 BLOOR ST. W.
전 화 : 534-9977, 534-7791

~~ 기 간 : 12월24일까지 ~~

재고번호 Stock No.	크기(무게) Weight	색갈 Colour	투명도 Clarity	가 격
A934	1,72CRT	J	VS-2	$12,500
632	1,07CRT	L	I3	$1,400
A999	1,40CRT	J	I-1	$6,900
A846	1,03CPT	J	SI_2	$4,100
C10	1,00CRT	F-G	SI-2	$4,195
837	0,78CRT	F	VS-2	$4,036
A1001	1,36CRT	J	I2	$3,890
A1002	1,07CRT	I	VS2	$6,250

재고번호	크기(무게)	색 갈	투명도	가 격
A1003	0,51CRT	E	VVS-1	$3,895
A877	0,55CRT	H	VVS-2	$2,495
778	0,58CRT	H	SI-1	$2,350
A630	0,67CRT	J	SI-1	$1,990
A637	0,50CRT	I	SI-1	$1,795
A1011	0,65CRT	J	I2	$1,499
A1013	0,54CRT	I	VS2	$1,979
A1012	0,50CRT	I	SI-1	$1,643
A1006	0,53CRT	I	SI-1	$1,759

재고번호	크기(무게)	색 갈	투명도	가 격
A1010	0,47CRT	J	SI-1	$1,290
A1009	0,50CRT	J-K	SI-2	$1,320
A1007	0,57CRT	H	SI-1	$2,199
A1008	0,55CRT	G	SI-1	$2,099
A1005	0,58CRT	H	VS2	$2,200
A996	0,56CRT	J	VVS1	$2,820
568	0,54CRT	H	I-1	$1,995
~~A1004~~	~~1,34~~	SOLD	~~SI-2~~	~~$7,750~~

And much much, more in stock.

상기가격에는 반지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이아몬드 품질규격은 미국 GIA의 CODE에 준함

ADDITIONAL PRE-XMAS SALE ITEM

SEIKO WATCH 35% OFF CONCORD WATCH 40% OFF
OMEGA WATCH 35% OFF BULOVA WATCH 40% OFF

ROLEX대리점 은하보석상

은하보석상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겨울추위를 몰아낸 열기!
한인합창단"메시야"총연습
노스욕교향악단과 협연

<현지답사>

차가운 날씨를 무릅쓰고 유난히 바람이 드센 세네카·칼리지 강당입구 에서, 남녀 5, 6명이 바쁜 걸음으로 들어선다.

한인합창단의 메시야대 공연을 일주일 앞둔 29일(금) 저녁7시 10분전, 정각 7시에 시작되는 총연습에 맞춰가기 위해 서두르는 합창단원들에 섞여 강당에 들어서니 이미 대부분의 합창단원들은 입장했고, 노스·욕 교향악단 단원들도 자리를 잡고 음을 조정하고 있었다.

◇옥인걸(테너)

나이도 직업도 각기각색인 저들로 하여금 그 무엇이 초겨울의 추위를 온통 열기로 뒤바뀌게 하는 것일까?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남자단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강당뒤에서 의자를 내와 악단석 뒤로 합창단석을 만들어 놓고, 오캐스트라는 각지 音조정도 끝냈다. 노스·욕오케스트라는 원래 10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번 한인합창단원과의 공연에는 50여명만 참가한다.

이날의 총연습에는 옥인걸(테너), 신경욱(바리톤), 배정숙(알토), 이정애(소프라노)등 독창자들과 올갠의 유회자씨만 제외한 전 출연진이 모였다.

7시 약간 지나 지휘자 박재훈 박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노스·욕 오케스트라 총매니저인 Bill Ward씨와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Phil Frank씨등과 인사를 나누고 곧 지휘대에 올라섰다.

100여명의 한인합창단원이 자리를 잡고, 오케스트라도 튜닝을 끝내고 지휘자의 싸인을 기다리고 있는 규모는 거대하고 당당하다.

◇이정애(소프라노)

◇신경욱(바리톤)

"이렇게 규모가 큰 에트닉·그룹의 합창단과 공연하기는 우리 악단으로선 처음입니다." 노스·욕 교향악단 매니저 Bill Ward 씨의 말이다.

메시야의 첫부분 "주의 영광"이 시작된지 한 소절도 못가 지휘봉이 지휘자의 탁자를 거칠게 내려친다.

"소리를 내요. 소리를!"

바깥의 추위와 연습장의 열기에 섞여 붕 떠있던 단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소리를 내는데 열중시킨다.

숫적으로 보아 남자단원의 수가 3분의 1도 안되는 탓인지, 남자단원들의 애쓰는 모습이 안스럽고, 말을 잘 안듣는 악기를 나무라는 듯한 관악기 주자의 모습도 안타깝다.

옆에 앉은 Bill Ward 씨는 "저 트럼펫 주자는 늘 본래 멤버가 연습에 못오는 바람에 대신 나왔어요"라고 변명한다. 유명한 <할렐루야>에서 하이·라잇을 이루는 트럼펫의 소리가 자꾸 딴길로 새기 때문.

"웬만한 합창단으로서는 염두도 못내는 대곡을 연주하는 한인합창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휘자 닥터·박의 인품은 블루어 연합교회(서양인교회)에 나가시는 아버님(77세)을 통해 잘 알고 있읍니다." 던빌·워드씨는 9시10분전휴식시각이 됐는데, 혹 지휘자가 모르고 연습을 계속할까 봐 내려가 봐야 되겠다고 총총히 계단을 내려갔다.

◇배정숙(알토)

오는 3일 메시야의 독창진과 올개니스트 유회자씨는 다시 이 악단과 연습을 가진다.

독창진중 테너 옥인걸씨는 현재 로웰주립대학교 음대의 성악과장으로 있으며, 69년도 뉴욕 카네기홀에서 있은 음악연주가협회 콩쿨에서 1위, 카네기홀 독창회등 경력이 화려한 테너로 토론토 출연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바리톤 신경욱씨는 텍사스·텍 유니버시티의 성악과 부교수로, KBS 합창단 상임지휘자, 서울예고 음악과장, 인디애나대 성악 및 오페라연출 석사학위를 딴 실력파.

소프라노 이정애씨는 미가톨릭대 음악석사를 받고, 현재 미국에 거주, 하이든의 "천지창조," 브람스의 "진혼곡"의 독창 이외 푸치니의 "라보엠"에서 미미, 베르디의 "춘희"에서 춘희역등을 열창한 경력의 소유자.

앨토의 배정숙씨는 필라 한인장로교회 지휘자로 수차례의 독창회, TV출연, 오페라 "휘가로의 결혼," "나비부인"등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올개니스트 유회자씨는 이미 교민에게 널리 알려진 음악인으로서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음악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이 제6회인 한인합창단의 공연을 위한 티켓은 토론토 종교서관(535-1920)에서 판매하며, 티켓은 $12.00(A), $9.00(B), $6.00(C). 공연시일및 장소는 12월4일(금) 저녁8시, 메시홀(178 Victoria)이다.

판매세공제 자동차판매 촉진
11월중 81년 재고 거의 팔려

11월중 81년도형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7% 판매세 공제혜택은 불황으로 침체된 자동차산업계에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었다고 자동차산업계 대변인은 말한다.

이같은 계획으로 이미 수천대의 81년형 승용차와 경트럭들이 팔렸다고 온타리오자동차딜러협회의 '존·버드 집행이사가 밝혔다.

댄포스·아베뉴 소재 시보레 딜러 로벗슨·모터스(Robertson Motors Ltd.)의 제네랄·매니저 밥·웰쉬는 "정부의 판매세 공제혜택 이전에 우리는 거의 도산지경에 있었으나, 동 혜택으로 81년형 재고를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벗슨·모터스는 11월1달간 272대의 81년형 재고차를 팔아 작년 같은 달 144대를 판 것보다 훨씬 많은 판매실적을 올렸다.

웰쉬는 제네랄·모터스(GM)가 14.2%의 특별대자 이자율을 실시한 것도 판매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웰쉬및 다른 딜러들은 이같은 혜택기간이 끝나면 판매가 다시 부진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1월, 12월은 자동차 판매가 연중 가장 저조한 시기이다.

김기창 화가
맹인위해 기부금

(마나마(바레인)27일 연합) 한국의 저명한 화가 김기창씨는 29일 한국농인·맹인협회회장 자격으로 바레인적십자사에 미화300달러를 기부했다.

자신이 농인(귀머거리)이기도 한 화가 김기창씨는 바레인 마나마시에서개최중동 아시아 작가전시회 참석차 마나마에 들렀다.

<독자투고>

「제5계절을」 읽고

서 정 길(태권도사범)

지난 11월11일자의 제5계절의 "여름학교를 끝내고"를 읽고 공감한 바가있어 몇자 적어본다.

이민초기에 한 2년간 한인 Y.M.C.A.와 어느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 한 바 있었다.

여러 성질의 아이들을한 묶음으로 이끌어가자니 여러 모로 신경이 써지고, 어떻게 해야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됐다. 더우기 한국에서는 전혀 어린이를 지도한 바가 없고, 군에서나 사회에서도 성인들만 지도했던 바 어린이들의 개개인을 분석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은 한국말을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됐고, 웃사람을 대하는 예의와존경심도 결여돼 있었다.

자유분방한 이곳 생활에 적응되다보니 더욱더 이곳 어린이보다 무질서한가 보다.

저희들 끼리의 대화는피수적인(?)영어이다. 부모와의 대화에도 영어사용을 당연하다는듯.

여러가지 이유가 서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으로 국한되어있지, 절대로 눈빛깔이 달라지고, 머리, 피부가 변하여 캐네디안이 될수는 없지않은가!

그래서 내가 지도하는어린이들에게 만이라도 애국심과 존경심을 심어주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가르치기를 몇달 지내니 질서가 잡히고, 사범의 존재가치도 알고 웃사람을 존경해야되는 것을 깨달아 지는가보다.

엄한 규율, 태권도의 정신이 점차 몸속에 배어드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거취가 바로 잡히나보다.

나는 태권도도장을 「군대」라고 연상시키고 싶다. 잠시나마 자유환경속을 탈피하여 질서와 엄한규율체제하에서 협동정신과 자신감을 키우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장래 성장과정에 보탬이 되는가 싶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신이 결여된 챔피온이 나온들 무엇이 보람됨이 있겠는가?

그런 제자는 언젠가는 사범을 배신하고, 자기가 제일인양 맞설 것이다. 올바른 정신을 주입시키고, 기술향상을 바라는 것이 태권도 무도의 본분인가 본다.

내가 가르치는 도장은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곳으로 거의 반 이상의 학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어린이반은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와 거의 도장내에서 관찰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얼마전에는 한 부모님이 두 어린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 아이는 4살반 정도 밖에 안보이는 것이 똑똑하기는 하나 말썽을 일으킬 것같다. 입관 전에는 꼭 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더니 한달간만 지도해 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응낙하여 입관을 허가했다.

처음 얼마간은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전혀 무반응상태였으나 얼마 지나자 이곳이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주위환경을 느끼고 나니 점차 달라지고 있다.

대답은 항상 "Yes, Sir"란다.

어떤 부모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말썽을 피우니 혼내주면서라도 올바른 정신이 들게끔 교육시켜 달라다.

정말 이스라엘인이 제2세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새삼 느끼며,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한다.

자유세계 속에서 자녀온이네들도 사범을 존경할 줄 알고, 선배를 섬길 줄 알고, 더우기 동방에의 지국코리안 정신이 깃들어가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기며내일을 향하여 전진한다.

나타리·웃 의문의 죽음
「초원의 빛」등에 주연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초원의 빛」,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등 수많은 영화에서 낯이 익던 배우 나타리·웃(43)이 29일 아침 물에 빠진 시체로 발견됐다.

이곳 휴양지에서 1인용 고무보트를 혼자 타고 나간 후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7시간동안 수색을 벌인 후 해안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29일 아침8시경 시체로 발견됐다.

LA해양구조반의 제리·크럽 경위는 "그녀는 보트를 젓다가 미끄러졌거나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고원인을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사고전 웃 양은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나눈 후 모터가 달린 문제의 고무보트로 가족들이 있는 요트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남편 로버트·와그너는 시체를 확인 후 주위의 권유로 두딸과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

웃 양의 시체를 인도한 수색반의 봄바드씨는 "몸에는 아무 상처도 없었고 보트에도 이상이 없었다" 고 말했다.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현재로선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보트의 모터가 고장나 방향을 잃었거나 너무 멀리 해안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나타리·웃은「 이유없는 반항」「초원의 빛」등 으로 세번이나 아카데미 수상후보에 올랐으나 우리에게가장 알려진 작품은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마리아역이었다.

그녀는 현재 TV영화 「끝드윈 시장의 발광」이란 작품을 촬영중이었다.

1939년 샌프란시스코 에서 태어난 웃은 이미 4살때 영화「내일은 영원하다」에 출연, 아역스타로 부터 대스타로 자라났다.

57년 와그너와 만나 결혼했던 웃은 69년 이혼 후 리차드·그렉슨과 재혼했었다.

잠시 헤어졌던 와그너와 웃은 72년 다시 결합, 7살짜리 코트니양을 가졌다.

웃은 전남편에게서 딸하나를 가졌다.

첫졸업 14명
칼빈신학교

토론토의 칼빈신학교(교장 제화삼) 제1회 졸업식이 12월6일(일) 하오6시 갈보리교회당(3817 Lawrence Ave. E)에서 거행된다.

이번 첫 졸업생은 성서과 3명, 신과 11명이다.

◇졸업생 : 신과—정순영, 신종화, 이선직, 엄은호, 김희숙, 이연재, 엄기욱, 조중자, 안정식, 김차경, 김영순.

성서과—조진동, 조영순, 장원국.

한국수출 증가율
대만·홍콩 앞질러

(서울28일=연합)한국은 원화의 대 달러화 가치하락현상등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면에서 대만, 홍콩및 싱가포르를 앞질렀다고 28일 한국무역인협회가 밝혔다.

무역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한국의 수출실적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3.4%가 늘은 176억달러였다.

대만의 수출증가율은 16.3%, 홍콩은 10.7%, 싱가포르는 9.5%였다.

◇일단 이혼했다 다시결합해서 살던 나탈리·웃, 로버트·와그너 커플, 79년에 찍은사진이다.

보스크手中엔 百弗만 달랑
—상항空港 百85萬弗홈친犯人 체포되던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7백만달러의 현금을 수송중이던 브링크스 수송회사의 무장현금 수송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난후 15개월간 종적을 감추었던 범인 조지 보스크(26)가 지난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됐다.

▲법정에 출두하는 조지·보스크—7백만달러가 실린 현금수송차 를 몰고 도주, 1백85만달러를 챙긴 후 15개월만인 지난 22일 체포된 조지·보스크(왼쪽). 그는 범행당시 호송차의 경비원으로 범행을 했으며 체포당시 달랑 1백달러만 남았었다. <샌프란시스코—UPI>

범행당시 수송차량의 무장경비원으로 범행을 저질은 보스크는 22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수퍼마켓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직후 현금7백만달러중 훔친 1백85만 달러로 호화판생활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하는데 썼다고 자백했다.

보스크는 브링크스사차를 몰고 달아난뒤 다른 차를 훔쳐 행소니 쳤었는데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집어넣수 있는대로 집어넣은 것이 모두 1백85만달러로 7백만달러의 대부분은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것들이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범인체포를 위해 전세계를 수소문하다시피 했는데 정작 지난 22일 보스크가 상항의 한 수퍼마켓에서 체포됐을 때 수중에는 1백달러밖에 없었다.

보스크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와의 인터뷰에서 5만달러의 보상금이 탐나 자기의 거처를 경찰에 통보한 친구 에게 원한 감정이 없다고 말하고 『내일 연방건물로 가다 버스에 치어 죽더라도 나는 만족스런 삶을 살았다고 애기할 수 있기에 나쁜감정 갖지 않는다』고 태연히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5개월간의 도피생활중 그의 동성애연인이 무척 그립기도 했으나 만족한 세월이었다고 회고하고 몇번이나 자수하려고 마음 먹었었다고 말했다. 20년형을 언도 받을지도 모르는 보스크는 『가능한 대로 다시 내 삶을 재정비하게 되길 희망한다』

"豪華생활·가난한 사람위해 써 내일죽더라도 만족한삶 살았다"
헬機등 專貰내 다니며 홍청…10萬弗뿌리기도

고 말했는데 그동안 뉴욕, 시카고, 달라스, 덴버및 포트로더데일과 워싱턴등지를 편력하며 최고급 옷을 사입고 마약을 복용하며 호화아파트에 살면서 헬리콥터와 리무진을 세내 사람들을 떼지어 몰고 다니며 즐겼다.

그는 돈을 챙겨 달아난뒤 며칠뒤 그가 한때 조련사로 일한 한 지방의 동물학대방지회에 1만달러를 우송하기도 했으며 신중히 고려치도 않고 여러사람들에게 모두 10만달러를 뿌리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UPI>

교육담당부교역자초청

본교회에서는 제2세 기독교 교육을 전담하며, 부교역자의 임무를 담당하실 성직자를 초청하고 있읍니다.

1. 목사안수를 받았거나 앞으로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분.
2. 정규신학교를 졸업했거나 앞으로졸업 예정이신분.
3. 영어에 능하시고 기독교교육에 경험이 있으신분.
4. 대우는 캐나다연합교회 규정에의한 보장을 해드림.
5.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서류는 비밀로하여 반환하지 않음)
6. 보내실곳 : KOREAN UNITED CHURCH OF VANCOUVER 1811 W. 16TH AVE. VANCOUVER B.C. V6J 2M3
7. 전화 교회 : (604)733-4022
목사관 : (604)736-7854

캐나다뱅쿠버한인연합교회
당회장 : 반병섭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종합보험

김 흥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노년회 교양강좌> ③

맘대로 숨쉴수 있도록 가족구성원들 서로노력

김보경 (심리학자, 철학박사)

◇김보경박사

전화 오는 것도 불안스럽고 길을 가다가누가 무엇을 물어도 겁이 난다. 이러한 불안감이나 공포는 혼자 있기 싫어 하는 경향성을 만들게 되므로언제나 아들 며느리와 동반하기를 원하게 된다.

노부모가 동반하기를 바라는데 비하여 젊은 부부는 노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불안스러워지므로 여기에 숨바꼭질이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아래 노부모는 쉽게 배반감을 느끼게 되고, 또 젊은 부부는 죄악감과 더불어 동반치 못하는데 대한 온갖 변명을 만들게 된다.

4. 결론

결론으로 이민가정 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민가정의 가족제도내지 가족관계에는 급격한요동이 있게 된다. 남편과아내의 직업적, 가정적 역할이 한국가정에 비하여 다르게 되고,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관이 현저히 달라지고, 한국에서 초청되어 온 노부모는 가정의 지도세력이 되기보다 가정의의존멤버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가 문제이다. 나는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이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숨쉬어볼 수 있도록 구상 해 보자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숨쉰다는 말은 눈치봄 없이 자기하고싶은것 해볼수 있도록여유를 만들어 본다는 뜻 이고. 이는 가족구성원들이개인적 능력이나 취미나 활동을 존중한다는 말도된다. 노부모들을 마음대로 숨쉬게 해드린다는 말은 가정에서는 노부모님들이 마음놓고 거동하실수 있도록환경을 조성해 드린다는 것인데, 예를들어 노부모들이거하는 방안에 자유롭게사용하실수 있도록 전용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사정이 되면 변소까지도(보통마스트룸의 경우처럼)두게되면 마음이 한층 자유로울 것이고. 또 자유롭게 출입 하실수 있도록 버스타는법. 길 묻는법. 전화 하는법등을 가르쳐 드리면 사교및 신앙활동등도 구애됨이 없이 하실수 있다.

때로 아들 며느리들은노부모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줄수도 없는 사정이면서도 노부모에 대한 지나친 보호심. 또는 염려때문에오히려. 일거일동을 간섭하게 되고. 또 그분들의 활동과 자유를 저지하게 하는경우가 많이있다.

가족 구성원의 자유에대한 존중과 배려는 어린 자녀에 대한 태도에도 요구된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 지나친 보호. 지나친억제는 쉽게 자녀들 자신에대한부모의 불신임의 표현으로 오인되어 성장하고 독립하려는 그들의 반항심을일으키게 마련이다.

부부간에도 이 원리는적용된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편으로 항상 붙들어 매어두려고 할 때 갈등과 불화가 야기된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능력. 취미. 이상등을 발전시켜갈 때 삶에 의의를느낀다. 노인들이라고 이러한 자기성취의 욕구가 쇠퇴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과 재능을 쌓아오신 노인자신이 능동적으로 활동하셔서 생존해있는 한국 .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할때한인 이민사회에서의 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 본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이민 가정에 은퇴해 계시는 분들의 실태파악 이라든지. 개개인이 가진 재질과 경험의 발굴이라든지. 그 이외에 전시회. 발표회. 강습회 등으로 그 능력을 표현할 수있는 기회를 만들면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년에 한두번있는 노인위안의 밤. 또는 경로잔치의 대상으로만 자신을 두자말고. "백발의 위력"을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방법으로 표현할수 있다면보다 만족한 생활이 되리라 고 본다. (끝)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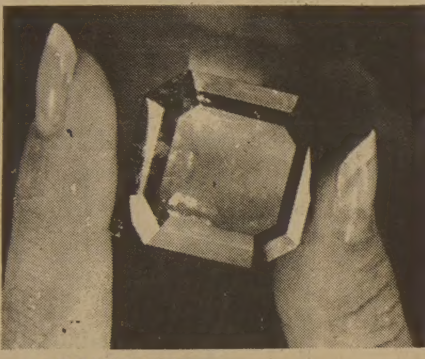
노스욕, 흡연금지 강화

노스욕(North York) 은 사람들이 줄선(line-up) 곳이나, 변소를 포함한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규칙(by-law)의 초안을작성했다.

현재는 노스욕 수퍼마켓에서의 흡연만 금하고있다.

이 초안을 작성한 분과위원회 호와드·모스코 의장은 이같은 금연조처는필요하다며, 흡연가들이 흡연함으로써 남에게 건강상 피해를 줄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규칙이 77년 토론토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흡연금지 위반시 첫번 위반일 경우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문다.


▲세계최대의 에메럴드.
83캐롯 크기의 이 에메럴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44세의 주인이 그의 걸프렌드 이름을 따서 "데니스·에머럴드"라고 붙인후 써던 캘리포니아주 자연물 박물관에 등록했다.

성물·도서바자

한인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교회(신부 고종옥)도서실은 12월 6일(일) 하오2시반 생·폴성당(83 Power St. Queen St. E×Pariament 1블럭 동쪽) 강당에서 크리스마스에 대비한 성물, 도서바자를 연다.

전시물은 각종 종교서적, 성화, 성상, 상패(메달), 로사리오(묵주)등이며, 특별염가로 판매한다.

성탄음악회

한인교향악단

토론토한인교향악단 (지휘 김승순) 은 오는 12월 12일(토) 하오7시30분 이스트·요크 고교(650 Cosburn Ave. ×Coxel) 에서 성탄음악 모음 패밀리·콘서트를 연다. (입장 무료)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⑩⓪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그의 썰매에 실려있는물건들은 진짜였고, 사람들의 공포가 흥분과 강한 호 기심으로 바뀌자 남녀노소할것없이 빙 둘러 서있는 사람들은 물건에 매혹되어완전히 얼어 붙어 버렸다.

그들은 한덩어리가 되어 호기심에 찬 손길로 이 물건 저 물건 만져보고 집어 보고 또 봉지를 찢어 보았다. 물건들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고, 상자곽이 열리고, 또 물건들이 눈위로 쏟아지고 흩어졌다. 또 주의를 하지 않아서 밀가루 푸대가 쏟아졌다.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총을 만져보고, 또 시퍼렇게 날이 선 손도끼를 보고 감탄 을 금치못했지만 꼭 그물건들이 갖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가꾸미는 그의 썰매에있는 물건들을 동네사람들이 마구 건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 물건에 대 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흥분해서 모여있는사람들 헤치고 한가운데로들어가서 썰매에 물건들을도로 챙기기 시작했다.

그가 사람들의 손에서물건을 빼앗아 놓으면 사람들은 다른물건을 집어들어 가꾸미 주위를 한바퀴 돌아갔기 때문에 마음의 화를 가라앉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찢어진 밀가루 푸대를 꾹꾹 찌르고 있는 어린애를 힘차게 걷어찼다. 그러나 흥분의 도가니속에 빠져있는 군중들은 그의 용서 못할 행동을 재빠르게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가꾸미의마음은 거의 절망적이 되어버렸다. 그는 그 백인 무역자와 계약을 한 사실을 아주 잊어버리고 주위에있는 사람들의 귀에 잊을수 없는 욕지거리를 마구 퍼부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분노의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때 일은 벌어졌다.

몇걸음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서 있던 그의형 카쿠트가 앞으로 나오더니총한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는 즐거운듯이 그것을 훑어 보더니 법을 알고 준수하는 사람의 냉정함을 갖고 썰매에서 돌아서서 총을 한팔에 끼고 자기의 이글루를 향해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

이렇게 하는것은 그의권리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 총한자루는 가뜩이나 가꾸미의 어린자식과 처때문에 비대해진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꾸미 자신은 다섯자루나 갖고 있었다.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것을 이웃과 나누어 쓰는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다.

가꾸미가 자기형이 총을 집어들고 가는것을 본것은 형이 채 10여보를 가기 전이었다. 혹시 누가 말리려고 했더라도 가꾸미가 너무 재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말릴 틈이 없었다. 그는 도끼를 하나 집어 들자마자 자기 형을 쫓아가서 날카로운 도끼날로 어깨한쪽을 내려쳤다.

카쿠트는 빙그르 돌더니다른 한손으로 상처를 움켜쥐자 손가락사이로 피가낭자하게 솟아나왔다. 그는 자기동생의 얼굴을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두사람사이에는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다. 썰매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가꾸미의 씩씩거리는 거칠은 숨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다음 모든사람들이 들도록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내가 가지고 온 이 모든 물건은 모두 내것이란 말이야! 카쿠트, 잘들으라고! 만일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면 죽여버리고 말테다!"

사람들은 생명처럼 오래된 법을 무자비하게 범하는 것을 보았기때문에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유사이래 없었던 일이었다.

가꾸미는 공동소유의 전통법을 함부로 파괴했을뿐만 아니라 생명의 법을 위반했던것이다. 이런 행 동은 정신이상자의 짓이며미친 사람의 짓이었다.

카쿠트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또 위험 때문에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카쿠트는 가꾸미가 미쳐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음인지 혹은 그 자신이 샤만이기 때문에 자기동생의 분노로 불타고있는 눈동자속에서 진짜 귀신의 위력을 느꼈음인지 눈위에 총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이글루를 향해 서서히 걸어가버렸다. 악마가 승리를 했다. 이제 가꾸미는 마음속에 있는것을 하나도 숨길 필요가 없게되었다.

(계속)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놓씩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요.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

20 ORFUS RD. 782—8851
조지 또는 그래그
401 HWY / DUFFERIN ST. / ORFUS RD. / LAWERENCE AVE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5 BERTRAND 752—7292
노홈·존
LAWERENCE E. / BERTRAND / EGLINTON E. / WARDEN AVE. / BIRCHMOUNT RD
평일 7:30—4:00P.M.
토요일 7:30—11:30A.M.

160 EVANS AV 255—6306
후랭크 또는 훨리
Q.E.W / EVANS AVE. / ISLINTON AVE. / ROYAL YORK RD
WEEKDAY 7:30 4:00P.M
토요일 7:30—11:30

송년파티

회원과 교민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망했던 한해를 다시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리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일 시 : 1981년12월31일(목) 저녁7시
장 소 : 거구장
인 원 : 80커플(선착순)
주 최 : 신우회
후 원 : 한국일보사 , 민중신문사
연락처 : 743—8220(Mr. 정) 651—1577(Mr. 배)
745—7843(Mr. 김) 247—1090(Mr. 최)

※밴드와 가수의 특별출연이 있아오니 기대하십시요.

상품기증업체 : 거구장. 미도파백화점. 황용현복덕방. 삼복식품. 동양식품. 노스욕 오토바디. 킴스미용실. 스타미용실 리스본 오토 콜리존.

'86 아시안게임 서울서開催

AGF總會, 滿場一致 北韓, 票대결 포기

【뉴델리25日AP聯合】 그동안 한국, 이라크, 북괴등 3국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3파전을 벌였던 86년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아시아 경기연맹(AGF)총회에서 25일 서울로 채택됐다. 26일 열린 AGF총회에서는 아시안·게임의 개최가 만장일치로 확정되었다. 86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던 이라크는 지난4일자로 철회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했다. 북괴도 그동안 유치공작을 펴는 한편 그들이 불리한 경우 서울개최를 저지하기위해 집요한 방해공작을 펴오다가 AGF회원국들의 대세가 한국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집행위원회의가 개막되기 하루전에 포기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발2백만弗…發送銀行→武裝現送車

◇25일 촬영한 뉴욕市 맨해턴 5번로40번가에 위치한 리퍼블릭·내셔널은행의 겉모습. 이 은행에서 韓國외환은행으로 발송한 현금 2백만달러가 종이뭉치로 바뀌져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있다. <사진>上
◇美國은행들이 현금수송시 사용하는 무장현송차량. 【뉴욕25日AP聯合】 <사진>下

北傀, 일체緘口

【서울=聯合】 北傀의 선전기관들은 86년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뉴델리 AGF총회의 진행사항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있다. 北傀의 보도기관들은 金得俊을 비롯한 그들 대표단의 AGF총회파견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은 86년아시안·게임의 단일신청국가가 된 것이다. 집행위 소식통들은 25일 북괴측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할것이 확실해지자 총회에서 표대결로 창피를 당하는것보다는 신청을 철회하는것이 체면을 유지하는길이라고 판단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新築·買入때 (5年內건축分 아파트도包含)

1千萬원까지 融資

來年1~3月 매달千억씩

年利19%…2年 거치후 1年 분할상환

賦金등無關 누구나對象

申請者많으면 無住宅者에 우선키로

정부는 내년1월부터 3월까지 매달1천억원씩 도합3천억원의 주택자금을 풀기로 했다. 융자받을수있는 자격은 집을 새로짓거나 5년이내 신축한집(아파트포함)을 매입하는 사람으로서 주택부금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1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있으나 융자신청자가 많으면 무주택세대주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받게된다. 융자신청은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며 12월중에 신청을 받아 각 은행이 심사, 내년 1월초부터 대출을 하게된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침체된 설비투자와 주택건축경기 부양을위해 임시조치로 주택수요자 금융을 신설, 실시키로하고 주택신축 또는 5년이내의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등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부금가입등의 조건없이 융자해주기로 했다.

금리는 年19%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후 1년분할상환조건이다.

이 주택수요자금융은 현재 지원하고있는 중장기복지주택부금이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지원이외에 별도로 지원하게된다.

住宅資金 남아돌아

그런데 올들어 10월말현재 주택자금은 민영 주택자금이 당초 연간 지원목표액 3천6백억원가운데 2천2백35억원, 국민주택자금이 1천5백94억원가운데 998억원이 대출되었을뿐이다. 자금여유가 있는데도 돈을 쓸 사람이 없어 대출을 못하고있는것이다.

민영주택자금은 복지주택부금가입자에게 8백만~1천만원한도내에서 20년장기로 융자해주거나 아파트등 집단주택건설업자나 입주자에게 복지주택부금 가입에관계없이 3백만~4백만원씩 융자해주고있다.

해설

劃期的 건축景氣 活性化대책
買氣 돋게…償還條件은 벅차

정부가 3천억원의 주택자금을 내년초부터 방출키로한것은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자극시켜 주택·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진 서민층이 집을 살 능력이 없으므로 부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지않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집살 자금부터 융자해주어 주택시장에 자금이 돌게하자는 계산이다.

그렇게하면 아파트를 지어놓고서도 팔리지않아 고전하고있는 주택건설업자들에게 간접적인 자금지원이되어 계속적인 주택·아파트공급이 가능하며 장기침체에 빠진 건축경기를 회복시킬수 있고 주택난을 완화할수있을 것이므로 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하고있다.

별다른 조건없이 우선 집값부터 융자해준다는것은 확실히 파격적인 조치이며 3~4백만원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내고있는 무주택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듯하다.

그러나 융자조건이 너무빠듯해 큰기대를 하기는 어려운면도 있다. 1천만원에 年19%의 금리라면 매달 이자만 1·5%, 15만원씩 물어야한다. 또 2년거치후 1년만에 분할상환으로 되어있어 영세서민층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教育税 오늘 表決처리

各常委 예산案·일반法案·請願등 審議

국회는 26일 運營·外務·內務·財務·商工·文公委등을 열어 예산관계및 일반法案과 請願등을 심의했다.

財務委 …

外務委 …

內務委 …

商工委 …

國史교과서 公聽會 文敎委
文化政策현황 聽取 國政諮問회의

韓·말聯航空회담 30일 서울서

社會漫評

「88」「86」!! 바쁘다바빠…

大入 學力考査 84학년부터

科目 年次추가

83학년은 現行대로

84년 國Ⅱ<인문> 數學Ⅱ<자연>
85년 科學Ⅰ<인문> 86년2外語
87년후는 새敎課로 다시 調整

◇학년도별 추가교과목

학년도	추가된 교과목 인문계	추가된 교과목 자연계
83	82學年度와同一	82學年度와同一
84	國語Ⅱ	數學Ⅱ
85	科學擇2 (科學1科目追加)	
86	英語必修 第2外國語	英語必修 第2外國語

문교부는 26일 83학년도이후 86학년도까지의 대입학력고사과목및 배점을 확정고시했다.

문교부가 당초제시한 4개시안중 제3안을 일부수정한 학력고사과목과 시험을 치르고 ▲84학년도에 인문계 국어Ⅱ, 자연계 수학Ⅱ, ▲85학년도에 인문계과학 1과목을 차례로 추가시키고 ▲86학년도에 가서는 인문계, 자연계 모두 영어를 필수로 하는 한편 제2외국어중 1과목을 추가 선택케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사과목수는 83학년도 14개과목, 84학년도 15개과목, 85학년도 인문계 16개과목, 자연계 15개과목, 86학년도 인문계 17개과목, 자연계 16개과목으로 각각 늘어나게된다.

地平線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한국일보 — 우리의理想은公正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SAI WOO레스토랑 (西湖酒樓)
「1954년에 설립된 토론토의 가장 훌륭한 중국음식점」
온갖 중국음식을 제공 합니다.
— BUSINESS MEN'S점심
— 파티및 연회환영
— TAKE OUT써비스
— 가족 저녁식사 제공
월~토 : 11 : 30~2 : 00
일요일 : 11 : 30 ~1 : 00
130 DUNDAS ST.W. (던다스×베이)
☎ : 977-4988~9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보잉社 크루즈미사일 첫生産

美空軍에 납품할 705基중 일부

來1월까지 14基引渡

空中發射用…레이다 피할수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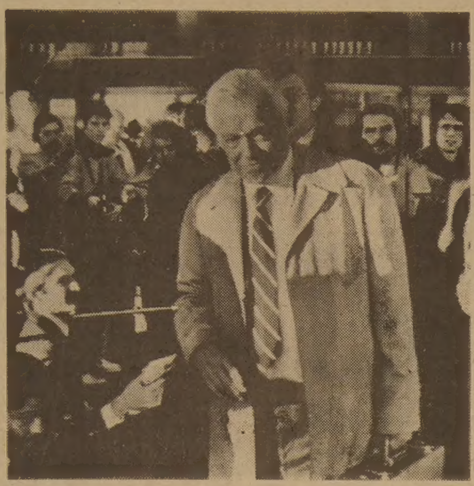
【켄트(美워싱턴州)25日AP=聯】보잉항공사가 美공군에 납품할 공중발사 크루즈(巡航)미사일 7백5基중 첫번째의 완제품을 24일 생산, 출고했다.

사정 2천4백24㎞이상의 이 크루즈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방사돼 저공으로 날아가기때문에 레이다에 포착되기 어렵도록 돼있다.

보잉사는 이미 24基의 試製品을 만든바있다. 이날 출고된 크루즈미사일은 80~81년회계연도의 3억1천8백만달러자금으로 제작될 미사일중 첫번째의 것인데 레이건행정부는 이러한 미사일을 3천基이상 원하고있다고 시사했었다.

이미사일은 11월에 2基, 12월에 5基, 그리고 내년1월에 7基를 각각 납품할 예정이며 지금부터는 월평균40대를 생산할것이라고 보잉사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변인은 뉴욕의 그리피스美공군기지에 있는 16대의 B52폭격기들이 각기12基씩의 크루즈미사일을 장비할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美·蘇軍縮회담의 美수석代表 오는 30일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美·蘇중거리核미사일 제한협상의 美國측 수석대표인 폴·니치대사가 25일 워싱턴의 美국무성을 떠나고있다.【워싱턴25日AP화=聯】

제네바 軍縮協商 진전되면 내년에 美·蘇頂上회담可能

【워싱턴25日UPI·聯=聯】美행정부는 레오니드·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이 서독방문중 내놓은 유럽배치핵미사일의 일정수준철거제의에 25일 긍정적 평가를내리면서 30일 제네바에서 시작될 美·蘇군축협상에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질경우 내년중 양국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이날 美NBC방송에출연, 현재로서는 美·蘇정상회담이 내년초에 열릴수있을지의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제네바군축회담의 협상분위기가 주요관건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核사용、가장큰犯罪

유엔政治委 결의안

【유엔본부26日AP=聯】유엔총회정치위원회는 25일 核무기의 선제사용을『인류에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과 중동과 동남아지역을 非核지대화하자는 제안들을 각각 승인, 유엔총회에넘겼다.

소련에 의해 발의된후 정치위에서 이날 승인된 결의안초안은『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있는 목표』는 핵무기의 생산중지와 기존핵무기의 폐기를 통해 완전한 핵무기감축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고 핵전쟁을 벌이는 행동은『범죄로 규정돼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브提議「協商기반」으로

레이건會見「0옵션」貫徹위해 노력"

【뉴욕26日外電=聯】레이건미대통령은 자신의 核군축제의에 대한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의 반응을『협상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24일 녹화되어 26일밤 방영될 ABC·TV 바바라·월터즈기자와의 회견에서『브레즈네프가 어떤 의미로는 이미 유럽에 배치된 미사일수를 특정수준까지 감축할것을 제의했다』고 말하고『이선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할수있다』고 덧붙였다.

브레즈네프는 소련이 유럽배치SS20미사일을 철거하는 댓가로 미국은 중거리핵미사일의 西歐배치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이른바『제로옵션』(0의선택) 제의를 거부하고 대신새 미사일의 유럽배치동결과 소련의 일방적인 미사일감축을 제의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브레즈네프의 이같은응답을 일단『협상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자신의『제로옵션』제의에 관해 소련과 의견의 일치를 볼수있도록 모든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30일부터 시작되는 제네바 미소 군축협상에 대해 낙관을 표시하고 브레즈네프와의 정상회담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랍聯 頂上회담 돌연中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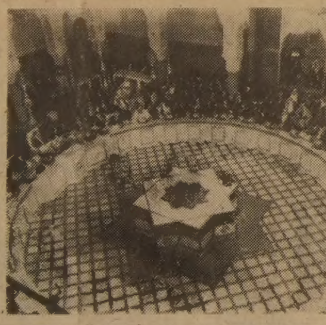
5시간만에…사우디案싸고 對立심각

【페즈(모로코)25日AP·AFP=聯】제12차 아랍연맹 정상회의가 아랍20개국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수뇌 및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하오11시6분(한국시간) 모로코의 페즈에서 개막됐으나 불과 5시간만에 회의가 갑자기 중단되었으며 다음 회의는 무기연기됐다.

모로코의 관영MAP통신은 이날 이번 회의의 주최자인 하산 모로코왕이 아랍정상회의의 중단과 무기연기를 선언했다고 보도하면서 그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통한 회의소식통들은 아랍 수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평화안을 놓고 심각한 의견대립이 생겨 회의가 무기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모로코 고위관리는 정상회의의 議長인 하산국왕이 아랍지도자들이 사우디가 제의한 8개항의 중동평화안을 놓고 날카로운대립을벌여 회의를『기약할수없는 교착상태』에 빠뜨렸기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를 무기연기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산왕은 이에따라 PLO를 포함한 21개 아랍국 외상들은 다시 모로코에서 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정작업을 갖기위해 외相회의를 열게될것이라고 밝혔다.



◇開幕직후 幕내린 아랍聯頂上회담 개막5시간만에 무기중단된 아랍정상회담광경.【페즈(모로코)25日UPI特約=聯】

브、訪獨후共同聲明서 표명

"核武器 가능한한 最低감축"

【본25日AP·AFP=聯】소련공산당 서기장겸 최고회의 간부회의장(국가원수)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제네바에서 오는30일 시작되는 美蘇군축회담의 기반조성에 목표를둔 4일간의 서독방문일정을 25일 모두끝내고 본을출발, 모스크바로 귀국했다.

브레즈네프와 슈미트 서독수상은 브레즈네프의 귀국직전에 발표한 양국 공동성명을통해 양측이 핵무기를『가능한한 최저수준』으로 제한하는데 대한 서독의 입장을거듭 확인하는 한편 데탕트(和解) 및 국제적인 안정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성명은 양측이 오는30일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美蘇군축회담에『만족』을 표시하고 상호 이견을 보이고있는 당면문제들과 관련, 서로의 이해를설명했다고말했다.

메아리

100달러美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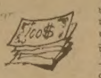
가계수표나 크레디트카드는 신용사회에서 통하는「제3의 화폐」다. 돈을 몸에 지녔을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위협이 없고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크레디트카드가 벌써 등장했고 가계수표는 시행 5개월이 가까와 오면서 권장의 효과가 나타나는듯하다. 그래도 제3의 화폐경제가 생활화되기엔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금에 대한 집착이 그「활용」의 壁처럼 막아서고 있는 탓이다.

미화 1백달러짜리 지폐인「그린 백」의 위력은 우리가 어림하는것보다 본국에서 더 대단한것 같다. 미국인들은 굳이 고액권이 지갑에 없어도 안전한 크레디트카드로 생활의 불편을모르고 살아간다. 미국을 여행할때 1백달러 지폐를 내밀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틀림없이 확인과정을 거치고 돈에 사인까지 하는 업소도 있다 한다.

1977년 가을, 인도 봄베이공항을 이륙한 일본 JAL여객기가 적군파인 히다까특공대에 의해 납치 당한 일이 있다. 이때 납치범들은 9명의 동료석방과 인질의 몸값으로 6백만달러의 거액을 요구했다. 그것도 그린백으로만 가져 오라는 조건을 붙여…. 납치범들의 요구에 굴복한 경제대국 일본도 1백달러짜리 지폐 4백만달러를 미국에서 긴급수송하는 소동을 벌여야했다.

외환은행에서 수입(?)하려던 1백달러지폐 2만장이 정말「귀신도 모르게」사라져 버렸다. 5년전 베이루트의 영국계은행에서 7천만달러를 털어간 간덩이가 부은 은행강도가 있었지만 2백만달러도 엄청난 거액이다. 웬만한 월급장이로선 몇代에 걸쳐 벌어야 손에 쥘까말까한 돈이다.



증발한 巨金은 그린백을 좋아하는 해외여행자들의 수요를 메우기 위해 들여오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오는 외국인관광객에비해 우리 해외여행자가 여전히 외화를 갑절이나 쓴다고한다(한국일보26일자8면).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여비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모양이나 아직도 밖에나가면 귀한외화를 헤프게쓰는 경향을 엿볼수있다.

2백만달러의 증발은「1백달러지폐의 무게」를 새삼 일깨워줄것 같다. 외국여행을떠날때 외화의 가치를 한번쯤 새겨보며 낭비를 억제했으면 좋겠다.

波학생盟休 확대一路

18개大學휴교…10여高校도 가담

【바르샤바25日UPI=聯】지난달 라돔공과대학의 학장해임으로 촉발된 폴란드학생盟休가 전국적으로 확산, 25일현재 전국1백5개 대학의 4분의3이 넘는 81개대학과 10여개고등학교가 수업을중단, 休校상태에있다.

학생들의 盟休가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전국대학총학장들과 학생대표및 교육성고위관리들은 26일 바르샤바에서회동, 라돔공과대학 소요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자유노조가 밝혔다.

학생측 대변인은 휴교상태에있는 전국 81개대학의 20여만학생들가운데 약5만5천명의 학생이 대학캠퍼스를 계속 점거하고있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계속늘어나고있다고 전했다. 루블린에있는 16개고등학교 학생들도 현재 盟休를 계속중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앨런、辭任확실

謝禮金사건 特別檢事임명경우

【산타바바라(美캘리포니아)25日UPI=聯】리처드·앨런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이 한일본잡지사로부터 1천달러의 사례금을 받은 사건과관련, 이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될 경우 앨런보좌관은 사임키로 결정할것같다고 한 백악관보좌관이 25일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보좌관은 만약 윌리엄·프렌치·스미드美법무장관이 앨런사건에 대한 특별조사가 필요한것으로 결정을 내릴경우 앨런보좌관이 현직에서 계속 머물러있게될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中共、무기輸出박차

【北京25日UPI=聯】중공은 제3세계에대한 소련의 영향력증대를 견제하기위해 금년들어 제3세계에 기록적인 약10억달러상당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北京주재 한 서방외교관이 24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제3세계에 대한 중공의 무기수출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있으며 중공은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구입중인 많은나라에 중공제무기를구입토록권유하고있다고전했다.

海外토픽

홍콩租借 30년연장

★시트教授, 協定타결주장

영국과 홍콩당국은 오는97년 조차기간이 만료되는 홍콩을 영국이 그후로도 30년동안 더 조차할수있도록 하는 상호협정을 타결시켰다고 홍콩대학의 빅터·시트교수가 최근발표.

시트교수는 홍콩의 장래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에서 중공의 소식통을 인용, 중공측이 영국과 조차기간재연장가능의 이같은 협정을 맺고 홍콩을『英國의 점령지』로 인정, 97년이후에도 홍콩이 영국의 조차지로 남게될 근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홍콩=外】

리퍼블릭銀 資産44억弗

美銀랭킹 67位

…증발된 2백만달러가 들어있던 현금행낭에 찍힌 납봉번호는 044345、044423、044409、044400、044319등으로 밝혀졌다.

이봉인번호는 2백만 달러의 수송업을 맡았던아모드익스프레스社 직원이 지난11일 KAL화물기 기장 崔正滿씨(46)에게준 인계 인수서에 명기돼있다.

이인수인계서에는 납봉인 이외에도 화주인 RNB소속 직원 알란토씨와 아모드익스프레스社의 경호담당 직원외 서명이 기재돼있다.

한편 증발된 2백만달러의 주인인 리퍼블릭 내셔널뱅크는 뉴욕시 5번가에 위치한 총자산 44억달러의 미국내랭킹 67위, 32개의 지점망을 갖고있는 은행이다.

그는 5개의 현금행낭이 조종석뒤편칸막이옆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崔기장으로부터 현금행낭을 잘간수하라는 부탁을여러번 받았다고 밝힌 강씨는『전에는 보통 현금부대가 한몽치로 왔었는데 최근들어 여러몽치로 와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뉴욕에서화물기를조종해온 KAL조종팀은崔正滿기장、朴진호부기장、주상득기관사였으며 서울로간팀은 임동선기장、오승환기장、신승보부기장、이무경기관사등4명이다.

또한 화물기가 도착했을때 평상대로 공항경찰이 이륙시까지 경호하고 있었으며 당시 화물기에 접근한 사람은 교대승무원, 공항정비사, 급유정비사, 캐터링서비스맨뿐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페어뱅크스공항경비를 맡고 있는 공항경찰 램·넬담당관은 25일 본보와의통화에서 FBI로부터참고사항질문을받아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우리는당시경비상황보고서 일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나의 이력서

元一漢④

〈題字·元一漢〉

閔妃에 예수얘기·스케이팅示範

祖父母와 한국朝廷

高宗毒殺방지 노력·貴族學校 설계도

할아버지 元杜尤목사는 아버지(元漢慶박사)가 태어나신후 할머니가 오랫동안 병중에서 신음하였으므로 가족을 데리고 미국서 2년간 머물렀다.

이동안 그는 정양할 기회는 별로 얻지 못한채 한국을 알리는 수천회의 강연을 가졌다고 듣고있다.

한편 할머니 호톤은 아직도 閔妃의 侍醫자격으로 가끔 궁안으로 불려 들어갔다.

할머니의기록에 의하면 1894년 한겨울 크리스머스 무렵 閔妃가 부르지에 갔더니 궁안의 연못이 잘 얼었으니 친구들과 아이들을 데리고와서 스케이팅을 하며 재미있게 놀라고 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이때야말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온가족과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얼음지치기를 즐겼고 연못의 소나무를 크리스머스·트리로 장식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얘기를 했더니 閔妃는 매우 흥미있게 들으면서 맛있는 약과와 귀한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었다.

그로부터 서너달뒤 1895년 봄 어느날 閔妃의 명을받들어 영의정 金弘集이 우리집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귀족들의 자녀를 가르칠 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한다.

대지는 이미 景福宮과 秘苑사이의 어느지점에 마련해놓았으며 미국인교사의 사택위치는 마음대로 정하라고했다.

이때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면서 크게 기뻐하여 당장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서까지 곁들여 재가를 올렸다. 며칠뒤 설계를 조금 수정해서 올리라는 기별이 왔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가를 올리려는 순간 閔妃가 일본인들에게 시해당하는 乙未사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궁궐안은 벌집을 쑤셔놓은듯 소란이 일어났고 각국 공사들은 구수회의를 열고 高宗을 뵈러 부리나케 드나들었으며 미국군함은 仁川항에 대기하고 있었다고한다.

이때 高宗은 혹시 음식에 독약을 풀어넣지 않았나 의심이나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않는다는 새소식이 있었으므로 선교사들은 일제히 임금옹위운동에 나섰다.

선교사 부인들이 음식을 올릴적에는 주석으로 만든 큰 돈궤속에다 넣고 자물쇠로 잠근다음 열쇠를 할아버지 내외분이 임금께 직접 갖다드려 잡숫게했다는 것이다.

임금옆에서 40여일간 야경을섰던 선교사로는 언더우드를 비롯하여 게일 벙커 어비슨씨등이었다고 듣고있다.

할아버지는 1901년에 癸卯年을 당하여 미국에 가는길에 인도양을 경유 瑠璃를 순례하고 유럽에서는 친척방문과 여행할 기회를 가졌다.

그의 세번째 미국체류는 1906년에 정양을 겸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때 한국교회사업을 위하여 수만금을 회사받았고 한국에서 일하겠다는 선교사 동지들도 많이 얻었다.

할아버지는 귀족학교설립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서울에 고등교육기관설립계획을 구체화하기에 전심전력했고 徽新학교를 확장하여 대학을세우려고 그 학교 교장을맡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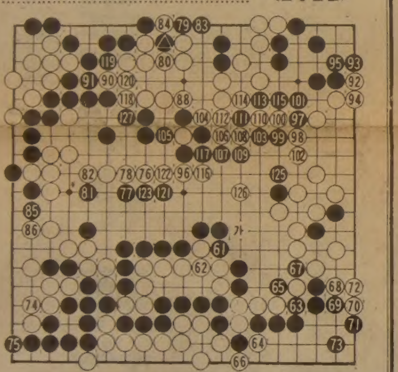
그러나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간에 대학설립문제에 관해 의견이일치하지않았으므로 할아버지는 1912년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다시 도미하였다.

어때는 아버지 호러스·H·언더우드가 한국으로부터 뉴욕대학에유학 4년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던때였으므로 그자리에 참석하고 또한모교로부터 한국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 신학박사학위를 받기도했다.

◇한국최초로 유아세례를받은 이들. 뒷줄이 徐炳浩와 金奎植, 앞줄오른쪽이 아버지 호러스·H·언더우드(元漢慶박사)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第9譜161~227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河燦錫〈1敗〉
黑(7段)徐奉洙〈1勝〉

하변의 엎치락싸움은 白62로서「빅」이 되었지만 黑은 실리를 온통 잃었을뿐 아니라 그외곽에 장만한 두터운세력도 이른바 虛勢, 아무리보아도 黑이 불리한 결과이다.

徐7단은 혀마저차며 쓴입맛을 다셨다. 원래 이곳전투는 白의억지, 즉 만해서 黑이 절대유리해야 되었고 실제로도 승리의 결정타를 던질 기회는 있었는데 아차하는 사이에 이꼴이 되었으니 徐7단의 말없는 한탄도 무리는 아니다.

이근처서 약간 냉정을 잃었는지 黑63에 치받은 수가 또 문제였다. 白이 기민하게 64로 한점을 잡게되어서는 이하 黑73까지 외끊이긴하나 이결과도 黑이손해만 자초한 꼴이다.

『黑63은 온건하게「가」자리에 두어 대마를 보강해야 옳았을것 같다』고 趙南哲8단은 말한다.

黑、5집반덤이 문제

형세는 여전히 黑이불리하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트집을 잡아볼 곳도 보이지 않고 白이선수마저 잡고있다.

白은 74를 선수하고 76。끝내기를 겸한 절호의 곳이다. 黑도 숙제거리로 남겨두었던 상변을 79로젖혀 패를 하다가 89로잇게 된것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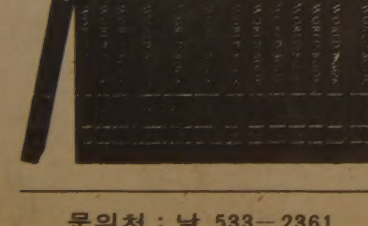
白96은 108쪽이 좀편했을 것같다는 중론. 黑97이하103의 예리한 수단을 당한때문이지만 그러나 白은 104이하 110이 준비되어있어서 계속 黑의 공격을 받았어도 120까지 안전하게 완생했다.

자、큰끝내기도 어언 없어지고나며 지는 잔끝내기뿐인데 黑은 5집반 덤을 내기가 벅찬 국면이다. 게다가 선수는 계속 白의수중에 있다. 87…▲。89…84。124…111 【一凡】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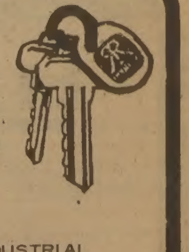
영업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알았어요, 여보…5시 30분에 중심가에서 만나요"
"당신은 항상 30분 늦으니까 정각 6시에 만나자구" "좋아요, 정각 6시에요"
"좋았어! 이제 30분이나 기다리고 서있지않아도 되겠군"
"좋아라! 그렇담 6시30분까지는 약속장소에 가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蘇남자팀 우승

世界체조선수권 團體戰서 5百88·95점

【모스크바25日外信=綜合】蘇聯 남자체조팀은 25일 이곳에서 벌어진 81년도 세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에서 588·95점으로 우승, 79년 美國포트워드세계선수권대회서 차지했던 세계남자체조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과거5차례나 세계선수권을 차지했던 라이벌 日本은 첫날규정종목과 사흘째인 이날 자유종목에서 모두 蘇聯에 뒤져 585·85점으로 79년도와 같은 준우승에 그쳤다.

세계체조의 신흥세력으로 떠오른 中共은 30년만에 처음 蘇聯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 강호 東獨을 제치고 583·90점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東獨은 583·75점으로 4위, 79년 3위인 美國은 577·30점으로 5위에 그쳤다. 北韓은 566·70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

▲남자단체전=①소련 588·95점 ②日本 585·85점 ③中共 583·90점 ④東獨 583·75점 ⑤美國 577·30 …

蘇聯·쿠바 3連勝

월드컵 남자排球

【東京支社】제4회 월드컵 남자배구 3일째경기가 25일 벌어져 쿠바와 蘇聯이 3연승으로 선두에 나섰다. 이날 蘇聯은 약체 튀니지를, 쿠바는 폴란드를 각각 3-0으로 완파,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이탈리아와 …

◇제3일 전적
중공 3-1 일본 (1승2패) (1승2패)
쿠바 3-0 폴란드 (3승) (2승1패)
소련 3-0 튀니지 (3승) (3패)
브라질 3-2 이탈리아 (2승1패) (3패)

데盃 美國대표팀에 매켄로도 選拔

【뉴욕26日AP=聯合】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3주일간 그랑프리대회출전정지를 당한 테니스스타 존·매켄로는 오는 12월11~13일 신시내티에 …

國際피겨스케이팅 27일日神戶서개최

【東京26日AFP=聯合】국제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日本 고베(神戶)시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에는 …

元代유물 密賣 5명검거

新安서 도굴 청자접시등 3千萬원상당

서울龍山경찰서는 26일 新安앞바다에서 도굴한 싯가 3천여만원어치의 元代 청자접시 6점을 몰래 팔려던 朴洪基씨(37·건축업·서울龍山區二村洞수정아파트707호)·金永南씨(38·건축업·서울麻浦區望遠洞427의6)·朴義景씨(37·무직·서울麻浦區合井洞782의11)·金龍植씨(43)·禹基석씨(48)등 5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중 朴洪基씨는 지난 79년7월 남 新安郡智島面)가 新安앞바다에서 전남 新安郡 …

…

不拘束송치·令狀 곧결정

女大生피살 J군 3차出頭요구도 거부

상경여대생 朴尙賢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6일 용의자 J군(21·K대3년)측이 지난 25일밤 『경찰에 갈수없다』는 3차출석불응통지서를 보내옴에 따라 더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기로 하고 27일께 검찰과 협의, 수일내로 최종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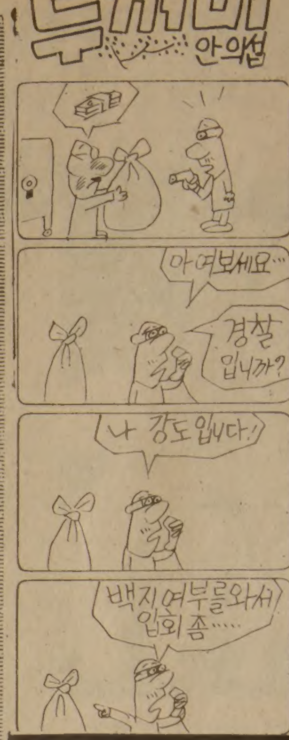
J군측은 이번 통지서에서 『1, 2차때와 같은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면서 1, 2차때의 출석불응통지서를 첨부, 발송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불구속 송치 또는 구속영장신청등 2가지 방법중 하나를 곧 결정키로 한것이다.

全대통령 弔意

趙演鉉씨 빈소

全斗煥 대통령은 26일 하오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겸 국문인협회 이사장인 趙演鉉씨 빈소(鍾路區仁寺洞11의1)에 李正植부의장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再修生이 殺人

동침淪落女 찔러

26일 상오6시20분께 서울東大門區典農2동620 羅仁植씨(34·상업)의 무허가하숙집에서 宋至淳군(20·재수생·경기始興郡西面光明里278의3)이 동침한 윤락녀 宋世喜양(24)을 과도로 찔러 숨지게했다.

…

진짜돈 2백만弗 어제 外換銀도착

…

서울地檢 남부지청 都台求지청장 辭表

…

식칼로自害…死亡

派出所서 조사받던 上京강도

25일 하오10시10분께 서울永登浦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鄭泰權군(21·무직·전남和順郡 和順邑 鄕廳里81의1)이 식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人間心性다른 作品엔 共通性

比較文學 학술발표회 吳賢一교수 발표

문학작품은 人間자체와 인간삶이를 소재로하는 예술이므로 각기 다른 문화·역사적 토양을 지닌 민족의 문학작품들에서도 놀라울정도로 서로 비슷한 주제와 構造를 발견할수있다. 한국비교문학회는 21일 漢陽大學에서 冬季학술발표회를 열고, 우리나라 문학작품과 서양문학작품사이에서의 同質性과 異質性을 찾았다. 이가운데 獨逸의 클라이스트의「펜테질레아」와 작가미상의 李朝소설「李春風傳」을 비교, 연구한 吳賢一교수(建大)의 발표를 간추린다.

◇吳賢一교수

獨「펜테질레아」와「李春風傳」비슷한 모티브에 비슷한 展開

女性의 對男性 挑戰·승리감 그려

소설「李春風傳」은 儒教的인 양반사회 체제에서 허무주의적 향락에 탐닉하는 남성들을 대신해서 사회의부조리를 척결하는 슬기롭고 용감한 여성을그린 한글소설이다.

H·V·클라이스트(1777~1811년)는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독일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天才작가로 연구되는 소설가다. 클라이스트가 쓴「펜테질레아」는 그리스神話에서 소재를 빈 것으로, 역시 강하고 열정적인 기질을 가진 여성의 미묘한 心理를그린 작품이다. 펜테질레아는 女人들만이 사는 아마조네國의 女王으로, 용맹하고 슬기로운 여성이다. 그녀는 영웅 아킬레스를 사랑하나 女性을 사랑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아마조네국의 법률에 묶여 아킬레스를 사랑하면서도 살해하게 된다.

펜테질레아와「李春風傳」의 여주인공은 다같이 女性의 심리의 깊은 곳을 흐르는 남성에 대한 사랑과 증오의 이율배반적인 二重的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펜테질레아는 한쪽으로는 한남성에 사랑을 표시한것을 알게된후 자기 情熱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에비해 春風의 妻는 계교를 통해 남편의 위선과 허영의 가면을 벗겨 버리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일익을 맡아 해낸 여인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자랑스럽게 느끼며 남편과 화해한다. 春風의 妻는 계교를 쓰지만, 그 계교아래는 남편을 바로 잡고 사회를 바로 잡는다는 善意志가 깔려 있음을 보여 준다.

허영과 惡에 빠진 남편에 대한 증오심에서 일어나는복수와 도전, 도전을 통해 남성에 대한 승리감을 획득한 후, 다시 아내의 위치로 돌아가는 점은 동양적인 烈을 지키는 결말이다. 이 희극적인 결말은 펜테질레아가 한 남성에 대한 도전의식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파멸되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로 가는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여성이 품는 남성에 대한 敵意와 애정등 이율배반적인 內的충동, 그리고 남성에 대한 승리욕구등은 상당히 비슷한 動機를 지니고 비슷하게 전개된다. 소설의 마지막 해결에서 희극적인 결말과 비극적인 결말로 나누어지지만 이 것은 희랍비극의 속성과 朝鮮소설의 해학성에서 오는 한 특징의 표현이다.

「펜테질레아」와「李春風傳」은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문화·풍토속에서 나온 작품이지만 마치 같은 작가가 쓴 것 처럼 비슷한 모티브와 모티브의 비슷한 전개로 흥미를 일으킨다. 이 것은 인간의 心的 모티브, 心性의 內的 構造들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人間心性및 영혼구조의 시간·공간의 초월성때문에 古典文學과 古代文學이 現代에서 손색없이 살아 있고 현대독자들에게 여전히 호소될 수 있는것이다. 【桂】

◇作品의주인공「모모」

現代人의 精神的방황 묘사한 엔데의「모모」西獨서 再旋風

베스트셀러 1位로

【프랑크푸르트=南玎鎬 특파원】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모았던 미하엘·엔데(52)의 환상동화「모모」가 西獨에서 다시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 있어 엔데의「모모」선풍은 바다에서도 한창이다. 엔데가 쓴 또 다른 소설「끝없는 이야기」도「모모」와 함께 베스트셀러의 2·3위를 다투고 있어 엔데의 작품이 그의 고향의 독자를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가하는것을 보여준다. 엔데는 60년에 처녀작품「짐·크노프와기관사」…

…「모모」와「끝없는 이야기」는 몽상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로의 여행을 통해 물질화되어가는 현대사회속에서 현대인의 정신적 방황을 묘사한책.

특히「모모」는 현재까지 西獨 국내에서 1백만부가 팔려 엔데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모모」의 인기로 엔데는 일약 有名人이되어 여배우임게보르크·호프만과 결혼하는등 생활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

미등록 長身선수 발굴

농구協 88年五輪대비…來年 1月까지

남녀 국민학교5학년부터 고교1학년생 까지로 돼있다. 협회는 내년1월말까지 시·도지부로부터 추천을받아 체력·발전가능성등을 테스트 …

한국일보

…

流星의 賦

感傷異國月 ⑪

<24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2월 하순 통신사 수원(隨員)들의 인선이 결정되었다. …

■送年女流短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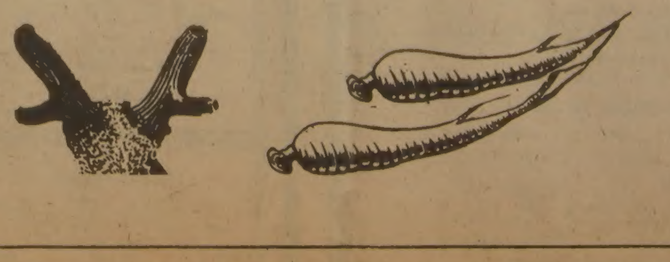
내 밥에 동불 <4>

梁貴子 作
金光培 畵

…

빅세븐선물센타 (구아세아 선물센타)
—GOOD NEWS—
〈기간 : 11월1일~ 12월31일〉
그동안 교민 여러분의 성원속에 날로 성장해온 아세아 선물센타는 금번 위와같이「빅 세븐 선물센타」로 상호를 변경하고, 아울러 "중국본토"로부터 직수입한「각종 한약재」와 한국의 최고급「인삼」을 교민여러분께 특별대매출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한약"
중국길림 흑룡강녹용 1냥 $ 59.
십전대보탕 1첩 $ 8.—
북경로얄제리 100정(2병) $ 20.—
편자황(진품100%) 간장염 $ 290.—
우황청심환, 호른환, 웅담, 북경산 위장약등 각종약재, 녹용정



"밍크및 각종털제품 염가매출"
●각종 물개가죽 핸드백
●불루·폭스, 레드·폭스, 실버·폭스 목도리및 칼라.
●밍크 숄, 밍크자켓
※이외에도 각종 선물용 구비했음.

678 BLOOR ST. W. TOR.(고려식품 옆) TEL : 533-7966 대표 김 영 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도넛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금, 토근무, 오후11시~아침7시.
☎ : 482-4088

스토아 헬퍼구함(주중)
KINGSTON & MIDLAND
☎ : 266-6355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목, 금, 토, 일)
DON MILLS와 SHAPPARD
☎ : 491-9701

서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크럽자켙만들 재봉사 모집
☎ : 241-5348

FULL TIME 쿡 구함
주 6일일함.
☎ : 421-6016

KEELE & WILSON 지역 가게에서 일할 경험자.
FULL OR PART TIME HELPER 구함
☎ : 221-2084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파타임 헬퍼구함.
(스카보로지역이면 좋음)
☎ : 267-4770

건물및GROCERY STORE 매매
매상 : $3,500~4,500
☎ : 535-0028(MR. KIM)

일요일 헬퍼구함(여자) (12시~저녁8시)
921-0624(다운타운소재)

동업자 구함
아주적은 투자로서 좋은 사업 할 수 있음.
한국서 고졸이상자의 학력 소지자로서 캐네디안과
충분한 대화를 할수있는 인격을 갖춘분 환영함.
☎ : 962-0019

● 레스토랑에서 일할분(FULL TIME)
● 좋은 대우
☎ : 486-1112(후랭소와)

매매및 양도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B) 656-6660
월요일에서 투요일까지 OPEN R) 224-2227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200 아스킹 $29000
☎ : 423-9899

COMMERICIAL BUILDING FOR SALE
2 STORY BRICK DETACHED WITH FULL BASEMENT GARAGE & PARKING FOR STORE & 3 BEDRM APTMENT OR OFFICE. VARIETY BUSINESS EQUIPMENT & STOCK OPTIONAL
☎ : 694-7781

급매 혹은 RENT(VICTORIA PK×FINCH 근처)
고급주택지 4BED ROOM, 4BATH ROOM,
LINK HOUSE. 3STORY. 2400 Sq. ft.
지하실 완전꾸며짐, FIRE PLACE, BALCONY.
가격 : $110,000 ☎ : 862-1433, 493-8792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TUCK SHOP
HAMILTON 소재 1600 SQ. FT.
RENT : $350 5½YR 10YEAR OPTIION
APARTMENT COMPLEX에 위치한 유일한 TUCK SHOP임.
현월수 순수익 : $4,000보장.
10시~10시사이 (MRS. 전)
☎ : 1-662-4705

도나스샵 급매 :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5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PLUS2베드룸 아파트 매매
스카보로에 있음. 최저 주매상 : $2,500
보증하고 $4,000으로 올릴수 있음. 좋은리스.
GLORIA GRANT 나 NINA WARREN에게 연락요.
☎ : 694-3336, 690-9983
FAMILY TRUST CORPORATION REALTOR.

매 매
자개애기 3층장, 나비장, 자개상.
☎ : 661-4581

BATHURST & QUEEN근처 : 방6개 있는 집, 좋은조건
금방 팔 수 있고 좋은 가격과 복덕방 안낌
☎ : 445-9486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카펫 · 카텐

가나안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원덕

카펫 크라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원보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리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집 · 방세 · 하숙

631A BLOOR ST. W. 2층 사무실 SUBLET합니다.
12월1일 입주가능
☎ : 535-6004

BLOOR & DUFFERIN
2베드룸, 교통편리
☎ : 537-5164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헌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882 김 수 용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촤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미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양 장 점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해수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니폰 · 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가마구찌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무슨광고를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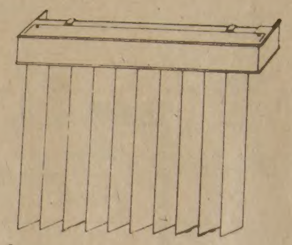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왜 돈을 더 지불하십니까?

Your Drapery Shop at Rockwood Mall

WHY PAY MORE?

30% OFF



ANY VERTICAL DRAPES, WINDOW
SHADES AND BALI (VENETIAN) BLINDS

LINEN $7.25 yd.

LABOUR $3.00-$4.50 yd.

SHEERS $6.50 yd.

WE OFFER YOU A HUGE SELECTION OF SPECIALS

I Beam Rail

5' — $2.80	8' — $4.20	10' — $5.20
6' — $3.35	9' — $4.85	11'-16' — $8.99
7' — $3.80		

GREAT SAVINGS ON ANY SIZE TRAVERSE SINGLE OR DOUBLE ROD

안녕 하십니까?
LUCKY DRAPERY는 개업한지 1년여가 다가옵니다.
그간 교민여러분께 인사 못들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
하며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LUCKY DRAPERY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세련된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1차 내왕해 주십시요.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 최 원 보 배

For Custom made drapes or ready mades SAVE YOUR MONEY — SHOP AT

LUCKY DRAPERY Rockwood Mall

4141 DIXIE ROAD MISSISSAUGA
(딕시×버남돌프) JUST NORTH OF BURNHAMTHORPE

CALL WON B. CHOI 625—0698

영업시간 :
월요일~토요일
9 : 30~9 : 30PM
(X—MAS까지 토요일은
오후 9 : 30OPEN)